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마친 두 남자 지진희 & 이준혁

연기자 지진희(48)와 이준혁(35)은 최근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 출연하며 섬 없는 활동의 행보를 이었다. 각기 다른 원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향후 또 다른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22일과 23일 각각 서울 신사동과 삼성동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연기 열정을 향한 뜨겁거나 혹은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술 마실 돈으로 골프라운딩 연기 스트레스 싹 사라지죠”

세미골퍼 자격증 따고 싶은데 가족들 눈치 드라마 원작 비교...늘 “내가 최고다” 최면

지진희는 한때 “은퐁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압박에 올랐다. 10년 전 암벽 등반을 시작한 뒤 서울 북한산의 인수봉을 2번 오르며 손바닥이 터지고, 코뼈가 부러졌다. 어깨 인대가 찢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3년 전부터는 골프를 치고 있다.

최근에는 실력까지 일취월장해 세미 골퍼 자격증 취득을 노리고 있다. “가족들 눈치가 보여 못하고 있지만 정말 도전하고 싶다”고 웃는 그의 골프 친구는 황정민, 장동건, 이종혁, 주진모 등이다. “만날 때마다 이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며 승부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일상 속 즐거움은 곧 일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연기 외에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술로도 풀어봤지만, 좋지 않은 일들로 연결되더라. 하하! 지금은 술 마실 돈으로 골프를 친다.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얘기하며 걷는 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60일, 지정생존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힘이기도 하다. 인기 미국드라마 '지정생존자'를 리메이크해 원작과 비교를 피할 수 없었지만 '내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자기 최면을 끊임없이 걸었다.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부 장관 역할을 맡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었다.

지진희는 “장르를 떠나 재밌는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다. “뻘한 것, 이미 누가 한 분야는 하고 싶지 않다”는 그는 “약간의 욕심을 더해 지금까지 좋았던 운을 이어서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정치 소재의 남성 중심 이야기여서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3.4%로 시작한 드라마는 6.2%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는 “앞으로 남녀노소 모두 만족하는 드라마가 나오기는 더욱 더 어렵지 않을까. 시청 타겟이 확실한 드라마에 시청자가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자나 연기자의 부담도 덜할 거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드라마 제작 및 방송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는 이성적으로 자신이 밟고 선 자리를 방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차갑지만 뜨거운 연기자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사진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 지진희

▲1971년 6월24일생 ▲1999년 조성빈의 '삼류 영화처럼' 뮤직비디오 데뷔 ▲드라마 '대장금' '불날' '스포트라이트' '대풍수' '따뜻한 말 한마디' 등 ▲2009년 KBS 2TV '결혼 못하는 남자'·연기대상 미니드라마 부문 우수연기상 ▲2010년 MBC '동이'·연기대상 최우수상 ▲영화 '오래된 정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등 주연

“매 작품마다 다른 캐릭터들 뉘아가는 과정이 연기 참맛”

매번 대본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 받아 더 나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려야죠

이준혁은 무언가를 연기 위해 안달하거나 조금씩 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스스로 정해놓은 감정의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처럼 냉정한 만큼 침착했다. 오뎅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과 마주하려 노력했다.

'60일, 지정생존자'에 출연하며 자신감 넘치는 말투, 권력 중독자, 확산에 찬 표정 등과 실제 그의 모습도 크게 달랐다. 그는 “오늘은 제 앞에 햄버거가 놓였지만 내일은 볶음밥이 놓일 수 있는, 매번 달라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 자신을 찾는 것”이 곧 연기라고 말했다. 자신과 합일점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연기하면서 저와 비슷한 인물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늘 다른 부분은 존재하지만 이를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있다. 그렇다고 내 성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연기하면서 캐릭터에 제 생각이 담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를 위해 연출자 유종선 PD, 김태희 작가와 틈날 때마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뒤 자신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때문에 그는 “대본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며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저화질'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싶다”고 했다.

스스로 더 좋고 나은 것을 갈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좋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는 “지금 젊은 시절의 풋풋한 열정을 잃었지만, 대신 값진 경험을 쌓고 있지 않느냐”며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언제나 제 최고의 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시간의 흐름은 마음가지도 움직였다. 연기자라는 직업을 처음 가졌을 때는 작품에 출연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목표를 이룬 지금은 어떻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며 웃는 그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평범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행복하다”고 했다.

이준혁은 “나도 가끔 화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다”며 “연애도 하고 싶다”고 했다. 결혼해 가정을 꾸려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한 가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사진제공 | 에이스팩토리

? 이준혁

▲1984년 3월13일생 ▲2007년 KBS 2TV 단막극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데뷔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시티홀' '수상한 삼형제' '시티헌터' '적도의 남자' '비밀의 숲' '너도 인간이니?' 등 ▲2008년 SBS '조강지처 클럽'·연기대상 뉴스타상 ▲영화 '청담보살' '신과 함께:죄와 벌' '신과 함께:인과연' '언니' 등

연예뉴스 HOT 5

BTS·블랙핑크, 美 레코드 골드 인증

김소희·송유빈 '사생활 유포' 곤욕

박하선 “채널A '오세연'은 인생작”

신봉선, 송은이 기획사 1호 계약

홍진영 '가족기획사' 설립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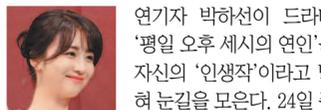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들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블랙핑크가 최근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RIAA)로부터 25일(한국시간)골드 인증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로 앨범 부문, 블랙핑크는 '뚜두뚜두'로 디지털 싱글 부문 골드 인증을 각각 얻었다. 특히 블랙핑크는 한국 걸그룹 최초 기록을 갖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러브 유어셀프 결연서'로 한국 가수 최초로 골드 앨범 인증을 받은 바 있어 그 위상을 확인시켰다.



김소희 송유빈

이 담긴 사진이 유포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최근 마스크를 착용한 두 남녀가 키스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 퍼져 나갔다. 김소희와 송유빈은 사진 속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양측은 24일 “두 사람이 1년 전 잠시 만난 건 사실이지만 이미 결별했다”면서 유포된 사진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유빈은 2017년 그룹 마이틴으로 데뷔해 이날 신곡을 발표했다. 김소희는 솔로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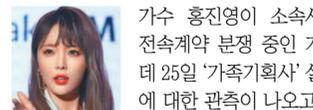
박하선

연기자 박하선이 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을 자신의 '인생작'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은다. 24일 종영한 채널A 금토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의 주연 박하선은 25일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소감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드라마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박하선은 결혼 5년차 주부의 사랑 이야기를 연기했다. 그는 “이번 드라마는 인생작을 넘어 평생작으로 남을 것 같다. 시청자 사랑, 소중한 마음이 배워간다”면서 “후유증이 오랫동안 갈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어 “민훈날 기억에 남는 드라마였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송은이 신봉선

개그우먼 송은이와 신봉선이 각각 소속사 대표와 소속 연예인으로 일하게 됐다. 송은이가 최근 기획사를 설립한 뒤 신봉선과 전속계약을 맺어 '1호 영입 연예인'으로 영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밤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송은이는 신봉선의 개인 매니저가 아직 없어 공항에서 그를 마중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모았다. 송은이와 신봉선은 오랜 시간 우정을 맺어온 절친한 선우배 개그우먼으로 김신영, 안영미 등과 함께 그룹 셉템파이브의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홍진영

가수 홍진영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25일 '가족기획사' 설립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진영은 최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소속사 측이 유체적 고통에 시달린 채 활동일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홍진영이 언니를 비롯한 가족이 운영하는 기획사를 설립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앞서 홍진영은 소속사 측에도 언니의 전속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